

대학생의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탐색행동 연구*

-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

A Study of Student Search Behavior in an Academic Library: Us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곽 철 완 (Chul-Wan Kwak)**

목 차

- | | |
|------------------|------------|
| 1. 서 론 | 2.2 선행 연구 |
| 1.1 연구의 필요성 | 3. 연구 방법 |
| 1.2 연구의 목적 | 3.1 데이터 수집 |
| 2. 개념 모델 및 선행 연구 | 3.2 데이터 분석 |
| 2.1 개념 모델 | 4.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다양한 생활태도와 특성이 대학도서관에서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조사하는데 있다.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요인분석, 회기분석, 군집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계획된 행동이론이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전공계열과 도서관 이용 빈도가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인지된 행동 통제, 탐색행동 의사 변인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학생 유형은 보수형, 독립형, 사교형, 유행형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사교형 학생 유형이 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6개 군집으로 구분한 결과 사교형 및 독립형의 학생 유형과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이 포함된 집단에서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llege student search behavior in an academic library.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was applied for identifying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on search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in an university. For data analysis, ANOVA,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 shows: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can be used for finding search intention in an academic library. Student major and library use frequency are different statistically in attitude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ehavioral intention. Student characteristics are divided into four types: conservative, independent, friendship, fashion. Friendship type of students influences search behavior. From cluster analysis, the cluster included friendship and independent types of students and students who have high frequency of library use has more active intention for search in academic library.

키워드: 탐색행동, 계획된 행동이론, 요인분석, 군집분석, 회기분석, 대학도서관
Search Behavior, Theory of Planned Behavior,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cademic Library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7315).

** 강남대학교 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ckwak@kangnam.ac.kr)

논문접수일자: 2017년 4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7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5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2): 157-178, 2017. (<http://dx.doi.org/10.4275/KSLIS.2017.51.2.15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가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도서관도 크게 변화되었다. 과거 정보서비스의 핵심 공간은 도서관이었지만, 오늘날 도서관 기능은 많이 변화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 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도서관, 학교, 가정 등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정보교환이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 외에 정보의 양과 전달 속도 측면에서도 크게 달라졌다. 단순한 정보전달 매체의 변화가 아니라 정보원도 변화되었고, 이용자의 정보환경도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바꾸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의 정보행동도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는 학술정보 서비스 기능의 변화라 볼 수 있다. 과거 대학도서관의 핵심 기능은 학술정보 제공이었으나,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대학도서관을 통하여 학술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는 대학 수업에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 대신 다양한 인터넷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원하는 학술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고, 쉽게 찾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이지 않다.

대학생들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찾는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정보원 측면에서,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정확성 혹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도록 인증되지 않았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 사회에서는 정보의 선택과 분류에 더 이상의 공평함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정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Sukovic, Litting and England 2011). 그러하더라도 최소한 학술정보는 잘못되거나 편향된 정보를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보 탐색자 측면에서 모든 학생들이 학술정보 탐색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포함하여 정보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검색기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다양한 기법들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 기법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불리언 연산자인 OR의 경우 동의어들 사이에 사용하여야 재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지식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 서비스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다. 이 질문의 답은 대학도서관을 통한 대학생들의 학술정보 탐색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학생들은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학술정보에 대해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술정보 탐색방법에 대한 지식은 어떠한지, 혹은 실제로 대학도서관을 통해 학술정보를 탐색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의 학술정보 탐색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맛집을 찾는 것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정보 탐색은 지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이루어진다. 이들 탐색은 지속적인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요구가 충족되면 해당 정보 탐색은 끝날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의 학술정보 탐색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일회성으로부터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인쇄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술정보 탐색행동은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태적 측면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Ajzen(1985)이 주장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다양한 생활태도와 특성이 대학도서관에서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된 행동이론의 단계별 변인들이 대학생들의 전공, 학년, 도서관 이용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계획된 행동이론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생활태도와 개인 특성이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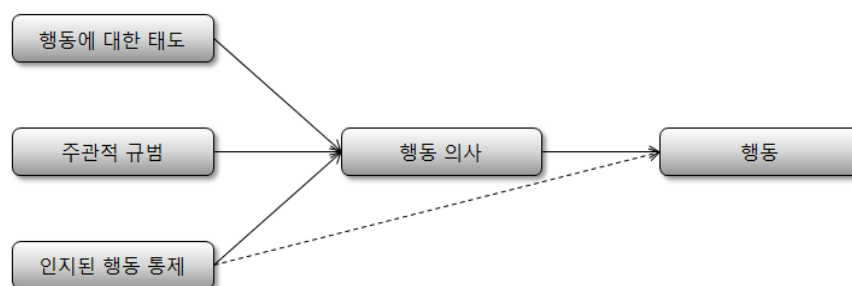
술정보 탐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의 생활태도와 특성을 기반으로 대학생들의 유형을 파악하여, 이들의 학술정보 탐색행동을 비교한다.

2. 개념 모델 및 선행 연구

2.1 개념 모델

계획된 행동이론은 개인의 행동(예, 학술정보 탐색행동)은 행동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행동 의지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로 구성된다. 이들 행동 의지로 인하여 ‘행동 의사’가 생겨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Ajzen 1985)(〈그림 1〉 참조).

각 변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행동에 대한 태도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느낌이다. 이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믿음과 그 결과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예, A 정보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술정보를 탐색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를 통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의 개념적 모델

둘째,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행동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정보 탐색에 관한 주관적 규범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지 혹은 반대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셋째, 인지된 행동 통제는 행동의 어려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정보 탐색에 대한 인지된 행동 통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학술정보 탐색에 관한 자신의 상황으로 현재 대학생이 처해 있는 상황이며, 일반적으로 정보 탐색에 대한 경험이나 관련 전공에 따라 탐색행동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넷째, 행동 의사는 실행에 옮긴다는 개인의 의지로 본 연구에서는 학술정보 탐색행동 의사로 이야기할 수 있다. 행동 의사는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관한 주관적 규범,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인지된 행동 통제에 의해 결정된다.

2.2 선행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지만,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극히 소수의 연구만 이루어졌다. 대만에서 Chang et al.(2008)은 '계획된 행동이론'의 뿌리가 되는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대만 대학생들의 디지털 도서관을 통한 정보 탐색 의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행동 의사(정보 탐색 의도)는 계획된 행동이론이 합리적

행위이론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으며, 인지된 행동 통제가 행동에 대한 태도나 주관적 규범에 비해 정보 탐색행동 의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사용된 두 가지 이론 모두 다 이용자의 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셋째, 긍정적인 인지된 행동 통제가 디지털 대학 도서관 이용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용자 스스로 디지털 도서관 이용에 관한 자신감이 디지털 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경영학 분야에서 대만의 Wu(2006)는 계획된 행동이론이 인터넷 서점에서 도서 구매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도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 특성에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Wu는 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점 이용자의 구매 행동을 이용자 생활 스타일과 개인의 특성을 기반으로 범주화한 후, 개인의 특성 범주가 계획된 행동이론의 단계별 변인에 개인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첫 번째 범주인 '유행에 따르며 독립적인 성향의 집단'은 인터넷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구입 의사가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집단은 친구, 선배 등에 관심이 많아 이들의 영향, 즉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관적 규범이 본인의 행동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인터넷 서점 관리자는 이 집단의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을 만족시키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범주인 '우호적인 집단'은 계획된 행동

이론의 주관적 규범이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행동 의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지된 행동 통제는 행동 의사와 매우 중요한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행동 의사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에 대한 태도는 행동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 범주인 '보수적인 집단'에게서 주관적 규범과 인지된 행동 통제는 행동 의사에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행동 의사는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는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터넷 서점 이용에 관하여 중간적인 점수를 가지고 있어서 인터넷 서점의 중요한 잠재적인 고객으로 생각된다고 저자는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계획된 행동이론'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경영학 분야 연구로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한유나 외(2009)는 노트북 소비자를 생활 스타일을 기반으로 범주화하여 구분한 후,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하여 노트북 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생활 스타일을 요인 분석을 통하여 4가지

〈표 1〉 국내의 정보행동 관련 계획된 행동이론 적용 연구

저자	제목	내용	출처
문일봉(2017)	미디어 이용 및 채택 행동에 적용된 계획된 행동이론(TPB)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미디어 이용이나 채택 행동에 관한 연구물을 대상으로 매타 분석을 실시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을 증명하였다. 미디어 사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가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의도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박희량(2010)	계획된 행동이론에 예기정서를 적용한 인터넷 구매 행동	인터넷 구매활동에서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확장할 때, 설명력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행동통제력 지각이 행동 의도를 더 설명할 수 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행동 통제력 지각요인이 행동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임윤정, 장형욱, 김성혁(2010)	외래 관광객들의 한류 문화콘텐츠에 대한 행동예측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한류 문화콘텐츠에 대한 행동을 분석한 결과 이론이 적용됨을 검증하였다. 특히, 일본인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서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관광연구
윤미선, 이종혁(2012)	소셜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매개모델 분석	소셜미디어 이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소셜미디어 이용에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최민음, 이정기, 박성복(2012)	대학생들의 종합일간지 유료 온라인 뉴스 콘텐츠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뉴스 콘텐츠 저작권 및 유료화 인식, 뉴스가치평가,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변인을 중심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종합일간지 유료 온라인 뉴스 콘텐츠 이용의도를 분석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 변인중 주관적 규범이 유료 온라인 뉴스 콘텐츠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언론학보

요인, 즉 ‘감각추구형’, ‘사용편리성추구형’, ‘이동편의성추구형’, ‘성능추구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감각추구형’ 집단에서는 노트북 구매 행동에 대한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가 노트북 구매에 관한 행동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되었으며, 이 그룹은 노트북이 주는 즐거움, 정보, 이용 가능성 등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사용편리성추구형’ 집단에서는 노트북 구매 행동에 대한 태도가 구매에 관한 행동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편리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동편의성추구형’ 집단에서는 사용편리성추구형 집단과 유사하게 노트북 구매 행동에 대한 태도가 구매에 관한 행동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다른 집단과 달리 인터넷에서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성능추구형’ 집단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노트북 구매에 관한 행동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들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대형전자상가에서 노트북을 많이 구입한다고 하였다. 그 밖의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표 1>과 같다.

3.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3.1.1 설문지 내용

설문지는 대학생들의 학술정보 탐색행동과 관련된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내용은 첫째,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통해 학술정보를 이용하는 탐색행동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에 관련된 내용, 둘째, 대학생들의 생활태도

및 개인의 특성에 관한 내용, 셋째, 설문 응답자의 배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학술정보 탐색행동과 관련된 질문은 Wu(2006) 연구를 기초로 하여, 학술정보 탐색에 대한 행동 의지인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탐색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 탐색행동에 대한 인지된 행동 통제를 포함하며, 탐색행동 의사와 탐색행동 변인을 포함한 총 10문항을 제시하였다. 대학생들의 생활태도 및 개인 특성에 관한 질문은 학술정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Wu(2006) 연구에서 사용된 인터넷 서점 이용자 유형 구분에 적용된 질문을 기반으로 이를 수정하여 18가지 항목을 문항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자에 관한 배경정보는 응답자의 전공계열, 학년, 도서관 이용 빈도에 대한 질문 3가지 문항이 포함되어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1.2 설문지 배포 및 수집

조사는 A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2014년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공, 예체능계열로 구분하여 수업 시간에 담당교수가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2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2 데이터 분석

3.2.1 응답자 현황

설문 응답자는 전체 600명으로 이중 인문계열 학생이 274명으로 45.7%, 사회계열 학생이 186명으로 31.0%, 이공계열 학생이 94명으로 15.7%, 예체능계열 학생이 41명으로 6.8%를 차

〈표 2〉 전공계열별 응답자 현황

계열	빈도	백분율(%)
인문계열	274	45.7
사회계열	186	31.0
이공계열	94	15.7
예체능계열	41	6.8
무응답	5	0.8
합계	600	100.0

〈표 3〉 학년별 응답자 현황

학년	빈도	백분율(%)
1학년	78	13.0
2학년	176	29.3
3학년	195	32.5
4학년	146	24.3
무응답	5	0.8
합계	600	100.0

〈표 4〉 응답자의 도서관 이용 빈도

이용 빈도	빈도	%
주중에 매일	38	6.3
1주일에 2-3회	133	22.2
1주일에 1회	98	16.3
한 달에 2-3회	127	21.2
한 달에 1회	69	11.7
거의 이용하지 않음	130	21.5
무응답	5	0.8
합계	600	100.0

지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78명으로 13.0%, 2학년이 176명으로 29.3%, 3학년이 195명으로 32.5%, 4학년이 146명으로 24.3%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의 도서관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1주일에 2-3회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33명(2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129명(21.5%), 한

달에 2-3회 이용한다는 학생이 127명(21.2%)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약 77.7%의 응답자는 최소 한 달에 1회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는 응답자도 44.8%를 차지하였다.

3.2.2 계획된 행동이론의 단계별 변인들과 대학생 배경

(1) 행동에 대한 태도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질문은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을 응답자의 전공계열, 학년, 도서관 이용 빈도와 비교하였다. 전공계열별로 비교한 결과, 학술정보 이용 편리성에 있어서 전공계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예체능계열이 3.34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사회계열이 3.08로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를 응답자의 학년별로 비교하였을 때,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와 응답자의 도서관 이용 빈도와 비교한 결과, 앞의 전공계열별 비교와 유사하게 학술정보 이용 편리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중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45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95로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일수록 도서관에서 학술정보 이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 이용에 대한 자신감은 도서관 이용 빈도로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중 거의

〈표 5〉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와 전공계열/학년/이용 빈도 관계

문항	전공계열/학년/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1. 도서관(홈페이지 포함)에는 많은 학술정보가 있다.	인문	3.41	.874	1.182/.316
	사회	3.33	.923	
	이공	3.28	.754	
	예체능	3.54	.674	
	1	3.46	.733	.554/.654
	2	3.39	.855	
	3	3.32	.911	
	4	3.37	.865	
	주중 거의 매일	3.58	.919	1.984/.079
	2-3회/주	3.46	.774	
	1회/주	3.37	.913	
	2-3회/달	3.42	.930	
	1회/달	3.35	.819	
	거의 이용하지 않음	3.19	.821	
2. 도서관(홈페이지 포함)에서 학술 정보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인문	3.30	.911	2.680/.046*
	사회	3.08	.950	
	이공	3.17	.838	
	예체능	3.34	.855	
	1	3.28	.851	.490/.690
	2	3.26	.854	
	3	3.19	.979	
	4	3.16	.926	
	주중 거의 매일	3.45	1.083	4.490/.001*
	2-3회/주	3.38	.868	
	1회/주	3.28	.917	
	2-3회/달	3.28	.881	
	1회/달	3.04	.824	
	거의 이용하지 않음	2.95	.916	
3. 도서관(홈페이지 포함)의 학술정보는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다.	인문	3.54	.943	1.402/.241
	사회	3.48	.902	
	이공	3.40	.896	
	예체능	3.73	.708	
	1	3.63	.791	.883/.450
	2	3.51	.920	
	3	3.44	.947	
	4	3.54	.905	
	주중 거의 매일	3.92	.749	2.430/.034*
	2-3회/주	3.58	.915	
	1회/주	3.54	.986	
	2-3회/달	3.48	.933	
	1회/달	3.39	.982	
	거의 이용하지 않음	3.40	.787	

*p < 0.05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92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달에 1회 정도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39로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는 도서관의 학술정보 이용이 편리하며, 어느 때라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반면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보

인다.

(2) 주관적 규범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관련된 질문은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을 응답자의 전공계열, 학년, 도서관 이용 빈도와 비교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전공계열과 비교했을 때, 학술정보 이용에서 교수의 역할

〈표 6〉 학술정보 탐색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전공계열/학년/이용 빈도 비교

문항	전공계열/학년/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4. 도서관(홈페이지 포함) 학술정보를 이용하는데 교수님의 추천이 중요하다.	인문	2.92	1.034	2.856/.037*
	사회	2.83	.993	
	이공	3.15	.829	
	예체능	3.15	.991	
	1	3.05	1.005	1.463/.224
	2	3.03	.979	
	3	2.87	1.043	
	4	2.94	.991	
	주중 거의 매일	2.89	1.226	.397/.851
	2-3회/주	3.00	.969	
	1회/주	2.94	1.024	
	2-3회/달	2.92	1.020	
	1회/달	2.81	.906	
	거의 이용하지 않음	2.98	.939	
5. 도서관(홈페이지 포함)의 학술정보를 이용하는데 친구나 선후배 추천이나 의견을 따른다.	인문	2.86	1.073	1.997/.113
	사회	2.83	1.090	
	이공	3.12	.973	
	예체능	3.05	1.043	
	1	3.15	1.117	3.468/.016*
	2	3.01	.991	
	3	2.82	1.028	
	4	2.76	1.056	
	주중 거의 매일	2.47	1.224	1.883/.095
	2-3회/주	2.99	1.077	
	1회/주	3.02	1.055	
	2-3회/달	2.94	1.037	
	1회/달	2.81	.967	
	거의 이용하지 않음	2.88	.965	

*p < 0.05

에 대해 전공계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공계열과 예체능계열이 3.15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인문계열 2.92, 사회계열 2.83 순이었다. 이공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는 교수의 지도가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에서는 상대적으로 응답자 자신의 의지대로 학술정보를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각 문항을 학년별로 비교했을 때, 학술정보 이용에서 친구나 선후배의 역할이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학년이 3.15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4학년이 2.76으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저학년인 경우에는 친구나 선후배의 추천 혹은 의견에 따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자신만의 탐색행동을 가지는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셋째, 각 문항을 도서관 이용 빈도로 비교했을 때, 주관적 규범은 이용 빈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었다.

(3) 인지된 행동 통제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인지적 행동 통제와 관련된 질문은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을 응답자의 전공계열, 학년, 도서관 이용 빈도와 비교하였다. 첫째, 학술정보 탐색방법에 대한 자신감을 전공계열별로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인문계열 응답자가 3.33으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이공계열 응답자가 2.74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인문계열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

로 응답한 이유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정보 탐색에 자신감을 보인 결과라 추정한다. 대학도서관에서 원하는 학술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전공계열별로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예체능계열 응답자가 3.46으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이공계열 응답자가 2.97로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전공별 특성의 결과로 이공계열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학술정보를 탐색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각 문항을 응답자의 학년과 비교했을 때, 문항 6과 문항 7 모두 학년별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각 문항을 응답자의 도서관 이용 빈도와 비교했을 때, 학술정보 탐색방법에 대한 자신감에서 주중 거의 매일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66으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반면에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56으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에서 원하는 학술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주당 2-3회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56으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99로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즉,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은 응답자들은 학술정보 탐색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용 빈도가 낮은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표 7〉 학술정보 탐색에 대한 인지적 행동 통제와 전공계열/학년/이용 빈도 비교

문항	전공계열/학년/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6. 나는 도서관(홈페이지 포함)에서 학술정보 찾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인문	3.33	1.143	6.344/.000*
	사회	3.06	1.163	
	이공	2.74	1.163	
	예체능	3.22	.988	
	1	3.17	1.074	1.717/.162
	2	3.04	1.138	
	3	3.10	1.241	
	4	3.32	1.166	
	주중 거의 매일	3.66	1.300	11.045/.000*
	2-3회/주	3.47	1.063	
	1회/주	3.11	1.135	
	2-3회/달	3.28	1.193	
	1회/달	3.11	1.198	
	거의 이용하지 않음	2.56	1.018	
7. 나는 원하는 학술정보를 도서관(홈페이지 포함)에서 찾을 수 있다.	인문	3.44	1.036	6.056/.000*
	사회	3.18	1.083	
	이공	2.97	1.010	
	예체능	3.46	.869	
	1	3.35	.991	1.485/.217
	2	3.25	1.000	
	3	3.19	1.092	
	4	3.42	1.078	
	주중 거의 매일	3.39	1.198	4.084/.001*
	2-3회/주	3.56	.980	
	1회/주	3.23	1.104	
	2-3회/달	3.33	1.032	
	1회/달	3.24	1.055	
	거의 이용하지 않음	2.99	.984	

*p < 0.05

(4) 행동 의사

학술정보 탐색에 대한 행동 의사와 관련된 질문은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을 응답자의 전공계열, 학년, 도서관 이용 빈도와 비교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전공계열과 비교했을 때, 질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도서관에 있는 학술정보 선호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인문계열 응답자가 3.21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이공계열 응답자가 2.82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대학도서관에 있는 학술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인문계열 응답자가 3.54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이공계열 응답자가 3.01로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행동 의사를 보인 반면, 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은 소극적인 행동 의사를 보였다.

둘째, 행동 의사와 관련된 질문을 학년별로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전공계열별 비교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이용 빈도와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도서관에 있는 학술정보 선호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주중에 도서관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37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반면에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74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

을 하였다. 대학도서관에 있는 학술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도서관을 주당 2-3회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65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87로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는 학술정보 탐색에 대한 행동 의사가 크지만,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학술정보 탐색에 대한 행동 의사가 낮았다.

〈표 8〉 학술정보 탐색에 대한 행동 의사와 전공계열/학년/이용 빈도 비교

문항	전공계열/학년/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8. 나는 도서관(홈페이지 포함)에 있는 학술정보를 선호한다.	인문	3.21	.969	5.806/.001*
	사회	2.91	.938	
	이공	2.82	.829	
	예체능	3.15	1.014	
	1	3.31	.930	2.401/.067
	2	3.05	.864	
	3	2.99	.974	
	4	2.98	1.024	
	주중 거의 매일	3.37	1.051	6.866/.000*
	2-3회/주	3.33	.959	
	1회/주	3.13	.986	
	2-3회/달	3.00	1.024	
	1회/달	2.87	.883	
	거의 이용하지 않음	2.74	.724	
9. 나는 도서관(홈페이지 포함)에 있는 학술정보를 이용할 것이다.	인문	3.54	.959	8.063/.000*
	사회	3.31	.997	
	이공	3.01	.823	
	예체능	3.17	1.160	
	1	3.64	.868	2.496/.059
	2	3.30	.934	
	3	3.33	.984	
	4	3.33	1.080	
	주중 거의 매일	3.58	1.004	10.815/.000*
	2-3회/주	3.65	.938	
	1회/주	3.56	.946	
	2-3회/달	3.36	.981	
	1회/달	3.31	.941	
	거의 이용하지 않음	2.87	.899	

*p < 0.05

(5) 행동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질문은 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응답자의 전공계열, 학년, 도서관 이용 빈도와 비교하였다. 첫째, 행동에 관한 질문을 응답자의 전공계열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인문계열 응답자가 3.00으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이공계열 응답자가 2.45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5점 척도에서 인문계열이 3.00으로 5점 척도에서 중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계열의 응답자들은 모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행동 의사' 변인에 관한 앞의 질문과 비교하면, 비록 지금까지 도서관의 학술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도서관에 있는 학술정보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응답자의 학년별로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응답자의 도서관 이용 빈도별로 비교했을 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중에 거의 매일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47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10으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 응답자는 도서관의 학술정보를 많이 이용하였지만, 도서관 이용 빈도가 낮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학술정보 이용이 적었다.

3.2.3 계획된 행동이론과 학술정보 탐색행동

두 번째 연구 목적인 계획된 행동이론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적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있어서 계획된 행동이론 적용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를 독립 변인으로, 행동 의사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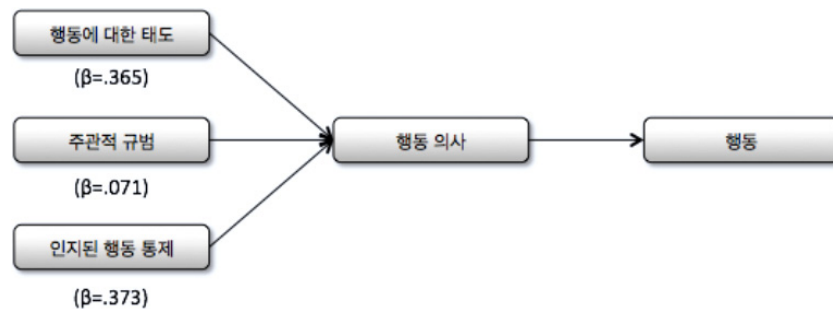
〈표 9〉 학술정보 탐색에 대한 행동과 전공계열 비교

문항	전공계열/학년/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10. 나는 도서관(홈페이지 포함)에 있는 학술정보를 이용해 왔다.	인문	3.00	1.236	5.216/.001*
	사회	2.76	1.212	
	이공	2.45	1.103	
	예체능	2.73	1.225	
	1	2.99	1.233	.832/.477
	2	2.73	1.207	
	3	2.83	1.258	
	4	2.83	1.181	
	주중 거의 매일	3.47	1.390	18.054/.000*
	2-3회/주	3.33	1.099	
	1회/주	2.87	1.204	
	2-3회/달	2.77	1.156	
	1회/달	2.83	1.262	
	거의 이용하지 않음	2.10	.954	

*p < 0.05

회귀모형은 F 통계값이 $p=.000$ 에서 133.611이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404$ 로 40.4% (수정계수에 의하면 40.1%)의 설명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975로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의지와 관련된 3가지 변인, 행동에 대한 태도($t=10.177$, $p < .01$), 주관적 규범($t=2.209$, $p < .05$), 인지된 행동통

제($t=10.468$, $p < .01$) 모두가 행동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획된 행동이론을 대학생들의 학술정보 탐색 행동에 적용할 수 있다. 행동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준화 회귀계수 β 를 비교한 결과 인지된 행동 통제($\beta=.373$)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결과는 Chang et al.(2008)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그림 2〉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준

〈표 10〉 학술정보 탐색행동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행동 의사	상수	.160		3.093	.002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043	.365	10.177	.000**	.781
	주관적 규범	.033	.071	2.209	.028*	.972
	인지된 행동 통제	.030	.373	10.468	.000**	.794
$R=.635$, $R^2=.404$, 수정된 $R^2=.401$, $F=133.611$, $p=.000$, Durbin-Watson=1.975						

** $p < 0.01$, * $p < 0.05$

〈표 11〉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미치는 행동 의사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행동	상수	.147		.021	.983	
	행동 의사	.044	.631	19.887	.000**	
$R=.631$, $R^2=.398$, 수정된 $R^2=.397$, $F=393.277$, $p=.000$						

** $p < 0.01$

학술정보 탐색에 관한 행동 의사가 실제 학술 정보 탐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F 통계값이 $p=.000$ 에서 393.277이었으며, 회귀 식에 대한 $R^2=.398$ 로 39.8%(수정계수에 의하면 39.7%)의 설명을 보이고 있어 회귀모형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행동 의사($t=19.887$, $p < .01$)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 행동 의사가 실제로 탐색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3.2.4 대학생 생활태도 및 개인 특성과 학술 정보 탐색행동

(1) 대학생 생활태도 및 개인 특성에 관한 요인분석

표본 자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KMO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이용하여 표본 자료를 검증하였다. KMO는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0.5 이상이므로 표본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한유나 외 2009). 또한 Bartlett의 검증을 통하여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변수 간 행렬이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한유나 외 2009)(〈표 12〉 참조).

18개 측정 항목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요인회전을 이용한 요인 분석을 실시

하여, 4가지 요인, ‘보수형’, ‘독립형’, ‘사교형’, ‘유행형’으로 구분하였다. 요인분석 진행 과정에서 요인 공통성이 0.4 이하의 제거하면서 계속 진행하여 7개 항목이 삭제되고, 최종적으로 11개 항목이 남아서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각 유형을 살펴보면, ‘보수형’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며, 그룹 활동에서 조용하고, 앉아서 하는 일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독립형’은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있으며 도전의식이 있고,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는 유형이다. ‘사교형’은 친구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고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낙천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유행형’은 유행에 따르는 것을 선호하며, 최근 유행하는 글을 찾아 읽는 유형이다(〈표 13〉 참조).

(2) 학생 유형과 학술정보 탐색행동의 관계

•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응답자의 5가지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변인과 요인분석으로 파악된 4가지 요인들을 그룹별로 묶어 비교하였다(〈표 14〉 참조).

탐색행동에 관련된 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주관적 규범 변인은 인지된 행동 통제 변인과 탐색행동 변인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학술정보 이용에 관한 교수님의 추천이나 선후배의 추천 및 의견에 따르는 것과 학술 정보를 탐색 방법과 탐색 능력, 그리고 탐색 행동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12〉 표본 자료 적합성 검증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KMO) 측도		.78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563.245
	자유도	36
	유의확률	.000

〈표 13〉 요인분석 결과

요인	항목명	요인분석				신뢰도 (cronbach α)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	
보수형	혼자 있음 선호	.752	.609	1.916	17.421	.605
	앉아서 활동 선호	.750	.628			
	그룹에서 조용	.655	.497			
	확실해야 함	삭제				
	자신을 표현 못함					
독립형	도전의식 소유	.800	.714	1.712	15.565	.601
	나만의 아이디어	.791	.646			
	내 장점 자랑	.472	.421			
	약한 사람 도움	삭제				
사교형	친구로 정보 얻음	.804	.654	1.682	15.288	.608
	친구 사귀기 선호	.632	.664			
	낙천주의자	.626	.493			
	그룹 활동 선호	삭제				
유행형	유행선호	.844	.729	1.446	13.145	.599
	최신유행 글 읽음	.823	.729			
	새로운 주변일 기록	삭제				
	새로운 물건 구입					
	변하는 것 선호					

〈표 14〉 변인의 기술통계량

변인		평균	표준편차	빈도
탐색 행동	1.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3.37	.731	598
	2.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	2.93	.846	598
	3.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인지된 행동 통제	3.22	1.038	598
	4. 학술정보 탐색을 위한 행동 의사	3.20	.873	598
	5. 학술정보 탐색행동	2.82	1.217	599
학생 유형	6. 보수형	3.00	.794	597
	7. 독립형	3.39	.698	595
	8. 사교형	3.69	.699	595
	9. 유행형	2.94	.855	596

학생 유형 변인과 탐색행동 변인간의 상관관계 살펴보면, '사교형' 변인은 탐색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 '행동 의사'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독립형' 변인은 오직 '주관적 규범'하고만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었고, '보수형' 변인은 탐색 '행동' 변인하고만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표 15〉 참조).

• 학생 유형과 학술정보 탐색행동

4가지 학생 유형 중에서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학생 유형은 독립변수,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를 종속 변수로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F 통계값이 $p=.000$ 에서 8.101이며, 회귀식에 대한 $R^2=.053$ 으로 5.3%(수정계수에 의하면 4.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877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유형과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수형($t=2.496$, $p < .05$), 사교형($t=5.269$, $p < .01$)이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 β 값을 비교한 결과 사교형($\beta=.236$)으로 보수

형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립형과 유행형은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표 16> 참조).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 행동 의사와 학생 유형과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오직 사교형이 이들 세 가지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른 학생 유형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즉, 사교형 학생 유형은 친구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고,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낙천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이 도서관의 학술정보 탐색 행동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표 17> ~<표 19> 참조).

〈표 15〉 변인간의 상관관계

변인번호	1	2	3	4	5	6	7	8
1	1							
2	.141**	1						
3	.445**	-.034	1					
4	.539**	.107**	.532**	1				
5	.427**	-.012	.647**	.631**	1			
6	.030	-.074	.014	.035	.081*	1		
7	.068	.116**	.068	.067	.034	-.294**	1	
8	.208**	.201**	.101*	.134**	.068	-.318**	.364**	1
9	.018	.053	.015	-.025	.024	-.135**	.216**	.17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16〉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가 학생 유형으로부터 받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탐색 행동에 대한 태도	상수	.275		7.728	.000	
	보수형	.040	.108	2.496	.013*	.862
	독립형	.047	.015	.335	.737	.814
	사교형	.047	.236	5.269	.000**	.809
	유행형	.036	-.006	-.156	.876	.943
R=.229, $R^2=.053$, 수정된 $R^2=.046$, F=8.101, $p=.000$, Durbin-Watson=1.877						

** $p < 0.01$, * $p < 0.05$

〈표 17〉 주관적 규범이 학생 유형으로부터 받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주관적 규범	상수	.319		5.842	.000	
	보수형	.046	.002	.053	.958	.860
	독립형	.054	.039	.881	.378	.816
	사교형	.054	.190	4.237	.000**	.812
	유행형	.041	.016	.394	.694	.944
	R = .211, R ² = .045, 수정된 R ² = .038, F = 6.791, p = .000, Durbin-Watson = 1.820					

**p < 0.01, *p < 0.05

〈표 18〉 인지된 행동 통제가 학생 유형으로부터 받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인지된 행동 통제	상수	.400		5.545	.000	
	보수형	.058	.057	1.286	.199	.863
	독립형	.068	.048	1.054	.292	.821
	사교형	.068	.098	2.142	.033*	.816
	유행형	.052	.000	-.005	.996	.944
	R = .115, R ² = .013, 수정된 R ² = .007, F = 1.962, p = .099, Durbin-Watson = 1.979					

**p < 0.01, *p < 0.05

〈표 19〉 행동 의사가 학생 유형으로부터 받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행동 의사	상수	.332		6.376	.000	
	보수형	.048	.086	1.951	.052	.863
	독립형	.056	.054	1.192	.234	.821
	사교형	.056	.150	3.316	.001**	.816
	유행형	.043	-.912	-.912	.362	.944
	R = .165, R ² = .027, 수정된 R ² = .020, F = 4.071, p = .003, Durbin-Watson = 1.841					

**p < 0.01, *p < 0.05

• 군집 분류

요인분석을 통해 학생의 특성을 4가지로 구분한 것을 기반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6가지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군집1은 138명으로 특별한 특성이 없으나 사교형이 약간 높은 집단이며, 군집2는 93명으로 사교형이 강한 집단이며, 군집3은 사교형과 독립형이 강한 집단이다. 군집4는 평범한 유형의 집단이며, 군집5는 독립형과

사교형이 강하며, 군집6은 평범하지만 보수형이 약간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표 20〉 참조).

군집별로 학생들의 전공계열, 학년, 도서관 이용 빈도와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공계열별 차이는 유의확률이 0.097로 p < 0.05에서 확률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고, 학년별 차이 역시 유의확률이 0.230으로 p < 0.05에서 유의한 차

〈표 20〉 군집분류 결과

요인	군집분류						F값	P-value
	군집1 (n=138)	군집2 (n=93)	군집3 (n=95)	군집4 (n=108)	군집5 (n=52)	군집6 (n=104)		
보수형	3.51	2.25	2.17	2.85	3.63	3.63	165.077	.000
독립형	3.32	3.39	4.08	3.28	4.06	2.61	103.076	.000
사교형	3.79	4.06	4.3	3.06	3.96	3.18	87.341	.000
유행형	3.61	2.35	3.76	3.07	2.02	2.14	199.173	.000
	사교형이 약간	사교형이 강함	사교형과 독립형이 강함	평범함	독립형과 사교형이 강함	보수형이 약간		

〈표 21〉 군집분류 결과와 응답자 배경 정보

		구분							유의확률
응답자 배경		군집1 n(%)	군집2 n(%)	군집3 n(%)	군집4 n(%)	군집5 n(%)	군집6 n(%)	전체 n(%)	
전공 계열	인문계열	59(10.0)	35(6.0)	38(6.5)	53(9.0)	29(4.9)	58(9.9)	272(46.3)	.097
	사회계열	48(8.2)	35(6.0)	31(5.3)	27(4.6)	10(1.7)	32(5.4)	183(31.1)	
	이공계열	23(3.9)	17(2.9)	15(2.6)	19(3.2)	8(1.4)	11(1.9)	93(15.8)	
	예체능계열	7(1.0)	6(1.0)	11(1.9)	9(1.5)	5(0.9)	2(0.3)	40(6.8)	
학년	1학년	20(3.4)	13(2.2)	10(1.7)	18(3.1)	5(0.9)	12(2.0)	78(13.3)	.230
	2학년	38(6.5)	29(4.9)	23(3.9)	30(5.1)	24(4.1)	30(5.1)	174(29.6)	
	3학년	49(8.3)	30(5.1)	27(4.6)	37(6.3)	15(2.6)	36(6.1)	194(33.0)	
	4학년	30(5.1)	21(3.6)	35(6.0)	23(3.9)	8(1.4)	25(4.3)	142(24.1)	
이용 빈도	주중에 매일	6(1.0)	2(0.3)	6(1.0)	4(0.7)	9(1.5)	10(1.7)	37(6.3)	.003*
	1주일에 2-3회	27(4.6)	15(2.6)	25(4.3)	28(4.8)	14(2.4)	23(3.9)	132(22.4)	
	1주일에 1회	22(3.7)	16(2.7)	12(2.0)	18(3.1)	13(2.2)	17(2.9)	98(16.7)	
	한달에 2-3회	28(4.8)	20(3.4)	20(3.4)	24(4.1)	7(1.2)	26(4.4)	125(21.3)	
	한달에 1회	11(1.9)	13(2.2)	17(2.9)	15(2.6)	5(0.9)	8(1.4)	69(11.7)	
	거의 이용 안함	43(7.3)	27(4.6)	15(2.6)	19(3.2)	4(0.7)	19(3.2)	127(21.6)	

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서관 이용 빈도는 유의확률이 0.003으로 $p < 0.01$ 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표 21〉 참조).

학술정보 탐색행동 의사와 군집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 확률이 0.002로 $p < 0.01$ 에서 확률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즉, 군집 사이에서 학술정보 탐색에 관한 '행동 의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134로 0.05보다 크므로, 사후분석에서 행동 의사는 '등분산이 가정됨'을 기준으로 하여 사후분석을 Turkey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군집5가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6보다 '행동 의사'가 높았다. 즉, 군집5는 학생 유형 중 독립형과 사교형이 강하며, 도서관 이용 빈도 측면에서는 도서관을 거의 매일 이용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의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표 22〉 참조).

〈표 22〉 군집별 학술정보 탐색에 관한 행동 의사 차이

종속변수	군집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증결과
행동 의사	군집1	3.1884	.77413	3.785/.002*	집단5>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6 (Turkey HSD)
	군집2	3.1559	.87221		
	군집3	3.1968	.95944		
	군집4	3.0463	.86882		
	군집5	3.6635	.78416		
	군집6	3.1990	.87543		

*p < 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이 대학도서관에서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된다면, 어떤 변인이 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의지와 관련된 3가지 변인, 즉,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 중에서 행동에 대한 태도 변인은 전공계열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규범 변인은 전공계열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인지된 행동 통제 변인은 전공계열과 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탐색행동 의사 변인에 있어서도 전공계열과 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계획된 행동이론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대학생들의 생활태도와 개인 특성이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의 생활태도 및 개인 특성에 관한 요인 분석에서 '보수형', '독립형', '사교형', '유행형'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Wu(2006)의 연구와 요인 구분에서는 동일하지만, 요인 설명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문화적 및 시대적인 차이 때문이라 추정된다. 학생 유형이 학술정보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수형과 사교형이 탐색행동 의지와 관련된 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보수형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교형은 탐색행동을 제외한 전 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사교형 유형의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한 학술정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 인쇄매체가 중심이던 시대에 도서관의 주 이용자 유형과 다르다고 추정한다. 즉, 인터넷 중심의 디지털시대로 들어오면서, 도서관은 학술정보 탐색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적용하였으며, 사교형 유형의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선호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학술정보 탐색에서 사교형 유형의 학생들 외에 다른 유형의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유형을 학생들의 전공계열, 학년, 도서관 이용 빈도와 연관하여 비교하기 위해 군집분류를 실시한 결과 6가지의 군집으로 구분되었

다. 이들 군집들을 학술정보 탐색에 대한 행동 의사와 비교하였을 때, 군집 간에 차이가 있었다. 사교형과 독립형 특징이 강하고,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이 포함된 집단에서 학술정보 탐색에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제언으로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 서비스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서관 이용 빈

도가 높은 학생들이 학술정보 탐색에 적극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증가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교수들의 도서관 학술정보 관련 추천이 학술정보 탐색행동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대학도서관과 교수 및 학생들이 서로 연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문일봉. 2017. 『미디어 이용 및 채택행동에 적용된 계획된 행동이론(TPB)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 [2] 박희량. 2010. 계획된 행동이론에 예기정서를 적용한 인터넷 구매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1(4): 661-686.
- [3] 윤미선, 이종혁. 2012. 소셜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매개모델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2): 5-44.
- [4] 임윤정, 장형욱, 김성혁. 2010. 외래 관광객들의 한류 문화콘텐츠에 대한 행동예측: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4(6): 131-149.
- [5] 최민음, 이정기, 박성복. 2012. 대학생들의 종합일간지 유료 온라인 뉴스 콘텐츠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뉴스 콘텐츠 저작권 및 유료화 인식, 뉴스가치평가,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1): 340-363.
- [6] 한유나 외. 2009.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그룹의 노트북컴퓨터 구매의도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6): 134-144.
- [7]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Kuhl, J. and Beckman, J. ed. *Action-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11-39.
- [8] Chang, C. C. et al. 2008. "Predicting Information Seeking Intention in Academic Digital Libraries." *The Electronic Library*, 27(3): 448-460.
- [9] Sukovic, S., David, L. and England, A. 2011. "Playing with the Future: Library Engagement and Change." *Australian Academic & Research Libraries*, 42(2): 70-87.

- [10] Wu, S. I. 2006. "A Comparison of the Behavior of Different Customer Clusters towards Internet Bookstores." *Information & Management*, 43(8): 986-100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un, Il Bong. 2017. *An Efficacy and Excellence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n Media Usage: A Meta-analytic Review*. Ph.D. diss.,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2] Park, Hie-rang. 2010. "Internet Purchase Behavior based on Anticipated Emotion Induc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11(4): 661-686.
- [3] Yoon, Mi-sun and Lee, Jong Hyuk. 2012. "Antecedents of Social Media Use, Actual Use, and Social Capital: An Analysis of a Mediation Model."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3(2): 5-44.
- [4] Im, Yun-Jeong, Jang, Hyeong-Wook and Kim, Seong-Huck. 2010. "Research Models for Predicting Foreign Tourists' Behavior toward Korean Wave Cultural Contents: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Korean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24(6): 131-149.
- [5] Choi, Mideum, Lee, Jeong-Ki and Park, Sung-Bok. 2012. "A Study on Intention to Using Paid Online News Contents of Daily Newspapers among College Students: With a Focus on Recognition of Copyright and Paid News Contents, Evaluation of Newsworthiness, and Expa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1): 340-363.
- [6] Han, You-Na et al. 2009. "Comparison of Laptop Computer Purchasing Intentions with Different Customer Segm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9(6): 134-144.